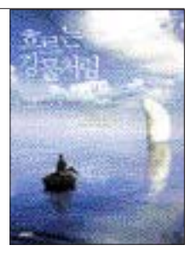
북스

Books

빛나는 삶 이끄는 101가지 지혜의 샘

흐르는 강물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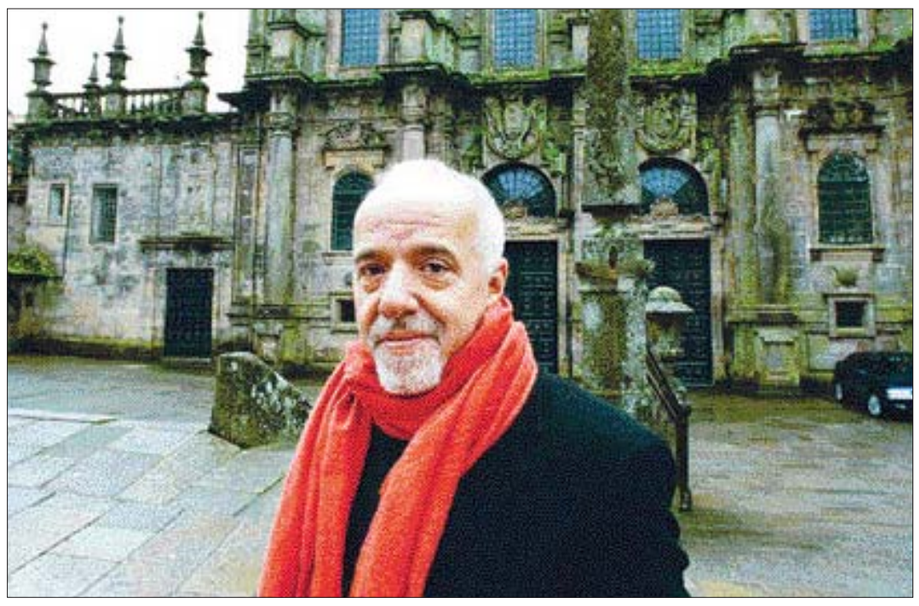
파울로 코엘료 지음, 박경희 옮김



세계 경제가 위기다. 70년 만의 대공황이라는 '폭풍'이 몰려온다고 한다. 앞날이 두렵다. 피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 세상사는 이들이라면 누구에게나 닥쳐오는 운명의 시간이다. 당당히 헤쳐나가는데 필요한 뭔가를 찾고도 싶다. "하필 이런 때 살게 뭐람" 하는 원망 같은 것도 고개를 쳐든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이다.

'연금술사'로 잘 알려진 작가 파울로 코엘료가 쓴 첫 산문집 '흐르는 강물처럼'은 101가지 지혜로 채워져 있다. 우리 앞에 놓인 오직 한 번뿐인 오늘을 살아가는 법을 들려준다. 작은 우화, 여행담 등이 빚어내는 울림은 잔잔하지만 그 파문은 오래 지속한다.

그의 '폭풍을 마주하는 법'(324쪽)을 들어보자. "나는 살면서 여러 차례 폭풍을 만났다. 폭풍은 예고 없이 만나는 게 보통이므로 나는 몇 가지를 배워야 했다. (아주 빨리) 멀리 내다보는 법, 날씨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 자연의 광포함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 모든 것이 사람 뜻대로 되는 건 아니며, 때로는 사람이 대상에 따라 길들여야 할 때도 있다… 〈중략〉 폭풍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여느 폭풍처럼, 이것 역시 재해를 몰고 올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폭풍은 들판을 적셔주고 하늘의 지혜를 알려준다. 그리고 여느 폭풍처럼, 그것은 곧 지나갈 것이다. 사나울수록 폭풍은 빨리 지나간다." 그는 전선을 망가뜨릴 정도로 거센 바람이 불어오면 피난처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기에 당당히 맞서는 쪽을 택한다.



첫 산문집 '흐르는 강물처럼'을 펴낸 작가 파울로 코엘료.

'인간 존재의 흥미로움'(272쪽)은 인간의 모순에 대해 꼬집는다. 어렸을 땐 어른이 되고 싶어 안달하다가도, 막상 어른이 되면 잃어버린 유년을 그리워하는 게 인간이란다. 돈을 버느라 건강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가 훗날 건강을 되찾기 위해 전 재산을 투자하고, 영원히 죽지 않을 듯 살다가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어간다고도 했다. 현재를 즐겁게 열심히 살라는 충고다.

'흐르는 강물처럼'엔 사람과 어울려 사는 훈훈한 얘기도 가득하다. 이야기의 중심엔 항상 '사랑'이 흐른다. 사랑은 우리네 영혼을 살찌우기에 충분하다. 직접 보고 감연을 부탁하기 위해 결국 머나먼 헤이그까지 찾아왔다는 '눈을 맞추세요'(45쪽), 죽은 지 20년 만에 발견된 도쿄의 한 남성을 다룬 '파자마를 죽고 입은 남자'(67쪽), 쇼핑몰에서 영혼의 연주를 들려주는 '쇼핑몰의 피아니스트'(86쪽), 죽은 어머니에게 세계여행을 보내주는 아들 이야기 '죽은 후의 세계 일주'(273쪽) 등은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큰 존재인지,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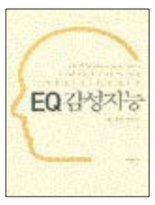
"두려워해도 됩니다. 걱정해도 됩니다. 그러나 비겁하지 마십시오. 두려움과 마주하고 근심의 순간을 뛰어넘으십시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는 당신의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도울 것입니다."

투쟁할 대상이 없으면 영혼이 약해지는 법. 길을 갈 용기 있는 자에게만 길은 열린다고 한다. 위기의 시대, '지혜의 연금술사' 코엘료가 제안하는 살아가는 방법에 귀가 솔깃해진다.

〈문학동네·1만2천원〉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EQ 감성지능' 특별판 출간



21세기 인재의 필수 역량으로 꼽히는 감성지능(EQ·Emotional Quotient)은 자기감정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전 세계 30개 언어로 번역돼 500만부 이상 팔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EQ 감성지능'이 출간 10주년을 맞아 기념 특별판을 양장본으로 펴냈다.

이번 특별판은 지난 10년간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그간 제기된 물음들에 명쾌한 답을 주는 새로운 서문이 추가됐다. 또 초창기에는 없었던 다양한 연구기관과 성과물을 접할 수 있는 자료안내 부분을 보강해 '감성혁명' 이후의 흐름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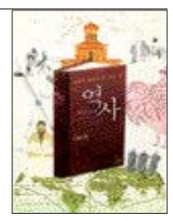
〈웅진지식하우스·2만5천원〉

/이은미기자 emlee@

시공을 뛰어넘는 '역사 뒤섞기'

역사

남경태 지음



흔히 역사는 미래를 여는 현재의 열쇠라고 한다. 필연처럼 반복되는 역사를 통해 현재의 문제를 풀고 미래를 진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외 역사와 철학에 관한 책들을 쓰고 번역해 온 남경태의 '사람이 알아야 할 모든 것-역사'는 동·서양사를 아우르는 역사서다. 시대별, 사건별로 엮었던 기존의 역사서와 달리 시대와 장소를 뛰어넘어 주관적인 평가와 해석을 중심축으로 동·서양의 역사를 한데 뭉뚱그려 설명한 흔치 않은 책이다. 전쟁, 배신 등의 소주제에 따라 동·서양을 넘나드는 다양한 역사의 이면을 골고루 살펴볼 수 있다.

이처럼 시공을 뛰어넘는 '역사 뒤섞기'가 가능한 것은 비슷한 과정을 되풀이하는 역사의 순간이 많았기 때문. 가령 모든 왕조는 개국 초기에 극심한 권력 투쟁의 시기를 겪는다.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혁명가가 숨을 거둔 뒤에는 필연적으로 그 권력의 단맛을 좇아 개국공신들과 왕자들이 암투를 벌였다.

원나라를 무너뜨리고 명 왕조를 건국한 주원장이 숨지자 그의 넷째 아들인 영락제는 결국 아버지가 우려한 대로 조카를 내몰고 재위를 찬탈했다. 또 수 제국의 건국자인 문제 양견도 병사했다고 기록됐지만 아들에게 독살됐다는 설이 있다.

이 같은 역사의 반복은 한국사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고려 왕건이 숨지자 지방 호족들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수많은 왕자를 앞세워 권력을 다퉜고, 조선의 태조 이성계의 사망 뒤에도 동생과 아들의 다툼이 계속됐다.

반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 역사에 대한 소개도 빠뜨리지 않았다.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제국의 통치자였지만 중국 황제와는 달리 적은 수의 노예와 왕궁만을 소유할 수밖에는 없었고, 전쟁도 자신의 돈을 들여 해야 하는 부자에 지나지 않았고 말한다.

이밖에 저자는 십자군 원정 이후 서유럽의 온갖 문제에 개입했던 중세 교황과 오늘날의 각국의 분쟁 조정자로 나서는 UN의 위상은 서로 닮아있다고 강조한다. 또 도덕적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원천을 역사에서 찾았다. 중세의 귀족들은 개인의 용기가 아닌 역사가 규정한 사회적 역할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전장에 나섰으며 동양사회는 그런 역사가 부재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이 부족한 것이라고 말한다.

책을 읽다 보면 20여 년 간 한국사와 세계사를 연구해 온 저자의 독특한 역사 인식들이 눈길을 끈다.

〈들녘·3만8천원〉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새책

▲달꽃과 늑대=소설가 한승원씨의 장남인 한동림이 등단 13년 만에 낸 첫 장편소설. 육식 동물과 초식동물의 숙명적 갈등을 모티프로 집과 가정, 고향이라는 장소가 한 인간에게 어떻게 각인되고 어떤 경로를 통해 정체가 형성되는지를 그렸다. 〈문학동네·1만원〉

▲잃어버린 것들의 책=불행한 가족사 때문에 동화 속 세상에 빠져든 한 소년의 이야기. 스릴러 작가인 존 코널리가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간직한 소년이 동화 속 세계를 탐험하며 성장해가는 과정을 그렸다. 〈폴라북스·1만3천800원〉

▲사이먼 래틀=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상임 지휘자인 사이먼 래틀의 평전. 30여 년간 그의 삶을 지켜본 영국의 음악 칼럼니스트인 니콜라스 케니언이 언론 기사와 인터뷰 등을 모아 책으로 펴냈다. 유년시절부터 버밍엄 시립교향악단을 세계 정상급 악단으로 성장시킨 과정이 담겼다. 〈(주)안그라픽스·2만원〉

▲조선을 뒤흔든 아버지와 아들=역사저술가인 이종호가 선조와 광해군, 허엽과 허균, 송시열과 송갑조, 인조와 소현세자, 이원수와 이이, 박지원과 박종채, 박규수 등 조선시대 부자 9쌍의 이야기를 통해 역사 속 사건을 살폈다. 〈역사의 아침·1만2천원〉

▲천 하나의 고원=들뢰즈와 가타리의 '안티 오이디푸스'로 시작된 자본주의와 분열증 시리즈의 속편이자 들뢰즈의 대표작. 1990년대부터 들뢰즈의 텍스트를 비롯한 탈근대적 사유에 대해 깊고 넓게 연구해온 국내파 철학자 이정우가 새롭게 해석했다. 〈돌베개·1만4천원〉

▲상실의 상속=2006년 맨부커상을 수상한 인도 출신 키란 데사이의 두 번째 장편소설. 히말라야 산중의 작은 도시 칼림퐁과 번화한 뉴욕의 할렘가를 배경으로 '세계 속의 인도사회'가 안은 상실감을 그렸다. 〈이레·1만5천원〉

▲최범석의 아이디어=남자배우들이 선호하는 '제너럴 아이디어'의 디자이너인 최범석의 두 번째 책. 20대 초반 동대문에서 원단 나르는 것부터 시작해 남성복 브랜드를 론칭하고 2009년 뉴욕 컬렉션 데뷔 무대를 준비하게 되기까지 디자인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가 담겼다. 〈푸른숲·1만5천800원〉

▲살로메=19세기 말 데카당스 예술을 주도했던 오스카 와일드가 마태복음 14장 6~11절에 실린 유대 헤로데 왕의 세례 요한 참수사건을 바탕으로 쓴 희곡. 헤로데 왕의 의붓딸 살로메와 그녀를 둘러싼 남성들을 통해 19세기 말 퇴폐적인 감성을 그렸다. 〈기린원·9천800원〉

▲당신의 아이를 CEO로 키워라=성공한 사업가이자 일곱 아이의 아버지인 트로이 던의 경제 교육서. 아이들의 능력에 맞춰 경제적인 개념을 일깨우고, 기업가의 자질을 기르는 방법을 들려 준다. 〈비즈니스맵·1만1천원〉

대인동삼일부동산
☎(代)223-1140, 5210 핸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옆,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손님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얻으실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상무랜드공인중개사
☎(FAX)383-5221 핸 011-609-5221
(구 상무대 정문)

▶건물
- 대607/건1,352 보37억/월 3,000만원 매매가 85억
- 대260/건2,000 보20억/월 4,000만원 융자 18억 매가 65억
- 대200/건900 보증금 30억/월 2,000만원매가 55억
- 대501/건1,500 보증금 7억 월수7,000만원매매가 110억
- 대500/건4,000평 매매가 220억

▶땅
(상무지구 중심상업지역)
- 826㎡(250평) 3.3㎡당 1,200만원
- 2,800㎡(850평) 3.3㎡당 1,300만원
- 727㎡(220평) 3.3㎡당1,200만원(유흥가)
- 450㎡(136평) 3.3㎡당 850만원(유흥가)
- 580평 평당 1,300만원
- 시청역입구 265평 평당 1,500만원 (기타지구)
- 330㎡(100평)3.3㎡당 800만원(시청역입구)
- 자연녹지 대로변 3,000평(예식장,학원적합)평당180만원
- 생산녹지 대로변 3,000평(장례식장 적합)평당250만원
- (동산동) 광산구 동산동 73,000㎡(2만2천평)3.3㎡당 265만원
- (쌍촌동) 대지512㎡(155평)20m 도로 접 3.3㎡당 265만원
- (장동동) 3,760㎡ (1,140평) 평당 40만

▶병원·학원·기타용도
- (하남삼성홈플러스옆 사거리차도) 근린지구1,652㎡(500평) ㎡당 600만원

▶모텔·호텔매매·사우나
- 객실35개 융자16억 매가28억
- 현금45억 투자 호텔 월 1억수익
- 현금30억 투자 월 임대수익 6,000만원

물건 교환 환영
★24시간 전화 물건 접수합니다★

금보부동산컨설팅
☎(代)261-8949 핸 011-602-2233
(산수동 543-51(두암타운입구 삼거리)

▶싼땅매매
- 동구 산수동 35m대로변 나대지720.6㎡ 매매가 6억 5,000만원(급매) 주유소, 병원부지 블루 최고적지
- 광산구 장록동 생산녹지 약 1,941㎡ 매가 2억 4,000만원
- 북구 망월동(청목동)2차선접 1종주거지역1,280㎡매매가3억
- 담양군 남면 구산리 계획관리지역 임야 6,869㎡(2차선접) 매매가 1억 5,000만원(급)
- 담양군 월산면 용흥리 임야 83,558㎡(2차선접) 농림지역 매매가 1억 3,000만원
- 담양군 대덕면 성곡리 임야 18,000㎡(국도접) 관리지역 매매가 1억 9,000만원
- 담양군 읍 삼만리 전원주택지 1,400㎡(4차선접) 매매가 1억 5,000만원

▶원룸부지매매
- 동구 산수동 238㎡(원룸허가필 16세대) 매가 1억 2,000만원
- 서구 화정동 208㎡(투룸 12세대 허가필) 매가 1억 2,000만원
- 동구 지산동 126㎡(원룸 8세대 허가필) 매매가 5,000만원
- 동구 산수동 222㎡ 10m도로변 준주거 매가 1억 1,500만원

▶건물매매
- 남구 봉선동 대 148㎡ 건343㎡(지하1층 지상 3층) 소방도로 4거리 코너 매가 1억 6,000만원
- 북구 문흥동 대지 396㎡ 건 1,791㎡(지하1층지상6층) 세 보증금 2억1,400만원에 월844만원 매가14억(융5억4,000포함)
- 북구 우암동 상권최고 4거리 코너 대지 1,023㎡ 건5,473㎡ 세보증금 20억 월 4,000만원 매가 60억(융자 18억포함)
- 서구 농성동 대로변 대 512㎡ 건1,139㎡(지하1층 지상4층) 세 보증금 1억 9,000만원 월 650만원 매매가 9억 7,000만원 (융자 5억포함)
- 북구 풍향동 대지 127㎡ 건 192㎡지상3층 매매가 1억 5,000만원(소방도로 x15m 코너)
- 북구 용봉동 대지 430㎡ 건평 318.3㎡(대로변코너) 2층건물 세 보증금 5,000만원에 월 600만원 매 8억 5,000만원

▶고시원 및 원룸주택매매
- 남구 주월동 대지 237㎡ 건 525.66㎡ 1층 당구장 2-4층 원룸 세 보증금 4,000만원 월 500만원 매매가 5억
- 남구 주월동 대304㎡ 건496㎡ 1층 점포2~4층 원룸 및 투룸 세 보증금8,100만원 월700만원 매매가 8억 5,000만원(신축)
- 동구 산수동 대176.2㎡ 건324㎡ 투룸 6세대 세 보증금 1억 2,300만원에 월120만원 매매2,000만원(융5,000만원포함)
- 북구 용봉동 상대 뒷편 대 332㎡ 건 902㎡ 건물 2층 고시원 실 85실 월수입 약 1590만원 매매가 8억 5,000만원(융자 3억 8,000만원 포함 급매)

▶주유소매매
- 광산구 소촌동 대 1,378.5㎡ 건 297㎡ 주유소 성업중 매매가 13억(융자 7억 포함)

※ 주유소 부지, 시외 주유소 매물 다량 보유 상담 환영
※ 토지, 건물, 원룸 물건 다량 보유

대승공인중개사
☎ 062)954-7700, 010-9468-7959

토지구합 **수완지구** 건축상담
아파트 매매·임대전문

토지매매
▶수완지구 333-1(명의변경가능) 60미터 대로변 상업용지, 3면도로 주차장인접 720㎡ 3.3㎡당 600만원
▶수완지구 아파트 밀집지역 정문 입구 상업용지 500㎡ ㎡당 210만
▶수완지구 단일평형 170세대 정문앞 이주자택지 330㎡ 3.3㎡당 450만원
▶광산구 수완동 35m 대로변 자연녹지 답 1,762㎡ 4,231㎡ ㎡당 70만(분할가)
▶광산구 신촌동 광송간대로변 지하철역 앞 상업지역 대지 286㎡ 매가 2억 9,000만
▶광산구 유계동 답4,300㎡ ㎡당 41,000원
▶광주 북구 동림동 6차선 대로변 대지 1,533㎡ 3.3㎡당 480만원

상가매매
▶운남동 주공9단지앞 PC방 183㎡(시비 있음) 매매가2억 3천만원

노블메디컬센터 임대분양
▶수완지구 중심상권
- 지하1층, 지상 8층 연면적 5,000㎡
- 1층 : 약국, 전시장, 안경점, 부동산, 이동통신업
- 2~5층 : 병의원(내과, 소아과, 안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등) 임대중(평수 다양)
- 원내 지하주차장 및 원외 주차장 설치로 주차공간 100% 확보

※1층 파리바게뜨 입점확정
2층 파파존스 피자 입점확정
6~8층 : 치과병원(임플란트전문) 개원 확정

수완지구 아파트 분양권 거래전문
◐ 수완지구 용지매매 및 개발상담 ◐

현대공인중개사
☎ (062)371-1900, 핸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지점, www.85858949.co.kr)

매매
◎상권 좋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매매
- 지 역:수완지구 주공 상가
- 면 적:82.228㎡(25.7평)
- 매매가:5억7천
- 특 징:아파트3200세대 중심에 위치, 명의 변경 가능
- 대출 가능금액:3~4억 (신용도에따라)

◎상권 좋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매매
- 지 역:수완지구 주공 상가
- 면 적:73.933㎡(22.3평)
- 매매가:5억
- 특 징:아파트632세대 중심에 위치, 명의 변경 가능
- 대출 가능금액:3~4억 (신용도에따라)

◎상권 좋은 수완지구 근린생활용지 매매
- 지 역:아파트 단지 앞
- 면 적:528㎡(160평)
- 매매가:7억 5천

◎영업 잘되는 모텔 매매
상무지구 / 첨단 / 품앗지구 등 기타 지역도 다수 확보

부동산 관련 직종의 전문가와 입지선정에서 준공까지 원스톱으로 컨설팅하여 드립니다.

토지 구합
◎별 장 용 지
- 지 역:화순, 장성, 담양, 나주, 함평-광주인접지역
- 면 적:1000평 이상
- 금 액:협의 후 결정
- 입지조건:물이 흐르는 곳

◎묘 지
- 지 역:함평, 장성, 나주
- 면 적:500~1000평
- 가 격:협의
- 조 건:도로변

◎건 물 구 합
아파트 단지 앞이나 상권 좋은곳 현금 4억~10억

저희 업소는 20년 가까운 중개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토지의 매매를 전문적으로 중개합니다.
병원/공장/원룸/식당 모텔/차고지/전원주택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부지 투자용토지 상가건물